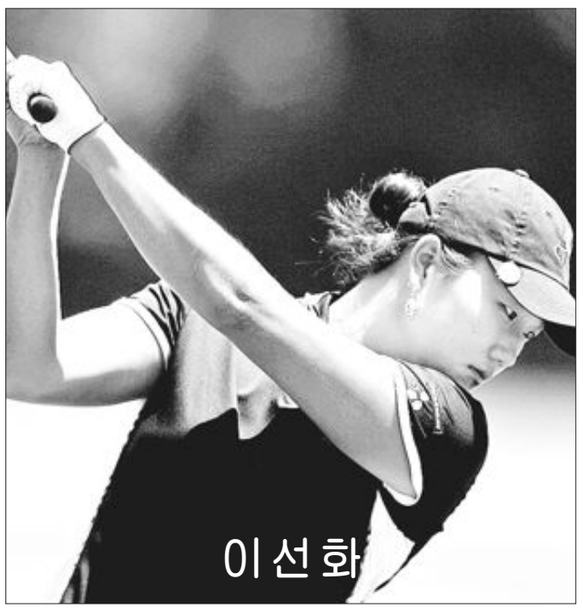
최경주가 22일 스코틀랜드 커누스티골프링크스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 골프대회 3라운드 14번홀에서 샷을 하기 앞서 멀리 그린을 바라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누가 이기든 우승까지 가자”

김미현·이선화 준결승서 맞대결

LPGA 매치플레이챔피언십

김미현(30·KTF)과 이선화(21·CJ)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매치플레이챔피언십 준결승에서 맞붙게 됐다.

김미현은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뉴로셸의 와이카길골프장(파71)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이지영(22·하이마트)을 1홀 차로 제치고 4강에 올랐다.

앞서 열린 3라운드에서 레이첼 해링턴(호주)을 3홀 차이로 따돌리고 8강에 오른 김미현은 1홀을 앞서던 상황에서 16번 홀을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김미현은 17번 홀을 내줘 다시 1홀 차이로 쫓겼지만 마지막 18번 홀을 비기면서 승리를 지켰다.

이선화는 린지 라이트(미국)를 8강에서 3홀 차이로 꺾었다. 이번 대회에서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을 꺾어 파란을 일으켰던 라이트는 3라운드에서 장정(27·기업은행)을 1홀 차이로 누르고 기세를 올렸지만 ‘코리안 시스터스’를 연달아 꺾기에는 힘이 부쳤다.

이선화는 5번 홀까지 서로 주고받는 ‘난타전’을 펼친 끝에 1홀 차 리드를 잡았고 이후에는 7, 9, 11번 홀 등 홀수 홀에서 계속 이겨나가며 격차를 벌렸다.

김미현과 이선화가 4강 맞대결을 펼치게 돼 한국 선수로는 2005년 1회 대회 이미나(26·KTF)에 이어 두 번째 결승 진출자가 나오게 됐다. 이미나는 당시 결승에서 마리사 바에나(콜롬비아)에 1홀 차이로 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반대편 4강 대진은 미야자토 아이(일본)와 마리아 요르트(스웨덴)의 대결로 짜였다.

3라운드에서 재미교포 김초롱(23)을 2홀 차로 꺾은 미야자토는 8강에서 에이미 헝(대만)과 접전을 펼치다 마지막 18번 홀을 잡아내며 1홀 차 승리를 거뒀다.

3라운드에서 안젤라 스탠퍼드(미국)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한 요르트는 8강에서는 모건 프란셀라(미국)를 4홀 차로 일축하고 준결승에 합류했다.

미야자토가 이길 경우 결승에서 한-일전이 펼쳐지게 돼 LPGA 무대에서 색다른 볼거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 3언더 3위…선두와 6타차

PGA 브리티시오픈 3R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가 제136회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 3라운드에서 1오버파로 주춤하며 한국인 첫 메이저대회 우승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최경주는 22일 스코틀랜드 커누스티골프링크스(파71·7천421야드)에서 열린 대회 3일째 경기에서 버디 2개를 치는 동안 보기는 3개를 범해 1타를 잃어 3언더파 210타로 공동 3위로 한 계단 내려섰다. 이날 같은 조에서 친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와 6타 차로 벌어져 마지막 라운드에서 역전 우승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아직 메이저대회 우승이 없는 가르시아는 3타를 줄이며 9언더파 204타로 단독 2위 스티브 스트리커(미국)에 3타 앞선 단독 1위를 굳게 지켰다.

2번 홀(파4)에서 버디를 낚으며 기분 좋게 출발한 최경주는 6번(파5)과 8번 홀(파3) 보기로 주춤했고 11번 홀(파4) 버디로 이를 만회했지만 전날 “내일만큼은 꼭 파를 치겠다”고 별렀던 ‘마의 18번 홀(파4)’에서 또 보기를 범하며 3라운드를 끝냈다.

최경주는 18번 홀에서 3일 연속 보기에 그쳤다. 최경주는 “후반 9홀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고 기온도 많이 떨어지는 등 어려운 날이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트리커는 7언더파를 쳤는데 나도 내일 일이 잘 풀린다면 비슷한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최경주는 “마지막 홀에서 또 보기를 했는데 어제는 드라이브샷이 왼쪽으로 휘어 그것을 의식하고 쳤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내일 행운이 따른다면 마지막 홀이 ‘좋은 홀(Good hole)’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창수 시즌 두번째 ‘톱 10’ 보인다

4언더 5위…선두 4타차 추격

PGA US뱅크챔피언십 3R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US뱅크 챔피언십에서 공동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며 시즌 두 번째 ‘톱 10’ 가능성을 높였다.

2라운드까지 공동 17위에 머물렀던 위창수는 22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브라운디어 파크 골프코스(파70·6천739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4언더파 66타를 쳤다.

8언더파 202타가 돼 단독 선두 팀 헤런(미국)에 4타 차이로 따라붙은 위창수는 1월 뷰익 인비테이셔널 공동 9위 이후 시즌 두 번째 10위권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

2라운드에서 버디만 4개를 쳤던 위창수는 이날도 버디 5개에 보기는 단 1개만 범하며 상승세를 이어가 마지막 날 결과에 따라 첫 승도 노려볼 만 하게 됐다.

앤서니 김(22·나이키골프)은 1타를 줄여 1언더파 209타로 공동 48위에 올랐다.

버디 6개, 보기 1개로 부지런히 타수를 줄인 헤런이 12언더파 198타로 공동 4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고 팀 클라크(남아공)와 조 오길비(미국)는 그보다 1타 뒤진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했다. /최재호기자 lion@

스포츠중계

23일(월)

▲KBS배 레슬링(14 : 10·KBS1)

▲메이저리그〈세인트루이스-애틀랜타〉(08 : 55·Xports)

▲큐스포츠 스페셜매치〈브롬달-정영화〉(14 : 30·MBC ESPN)

▲세계여자비치발리볼(14 : 50·KBS2)

▲맨체스터Utd 아시아투어〈맨체스터Utd-선전〉(21 : 00·MBC ESPN)

24일(화)

▲메이저리그〈보스턴-클리블랜드〉(07 : 55·Xports), 〈애틀랜타-샌프란시스코〉(11 : 00·Xports)

▲세계여자비치발리볼(14 : 50·KBS2)

“KO승부 더 늘리자 얇은 글러브 실험중”

범아시아권투연맹

솜이 덜 들어간 글러브가 이종격투기에 밀린 프로복싱 인기를 되살릴 수 있을까.

범아시아권투연맹(PABA)은 22일 슈퍼플라이급(52.16㎏) 이하 경량급 네 체급에서 그동안 써온 8온스(226g) 글러브 대신 6온스(170g) 글러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웰터급(66.68㎏)까지는 8온스, 슈퍼웰터급(69.85㎏) 이상은 10온스

경량급 4체급 경기에서 8온스 대신 6온스 사용

(283g) 글러브를 끼고 링 위에 올랐지만 지난해 12월1일부터 미니멈급, 라이트플라이급, 플라이급, 슈퍼플라이급 등 네 체급 타이틀전 8경기를 6온스 글러브로 치렀왔다는 설명이다.

충격을 흡수하는 솜을 줄여 KO 승부를 늘리자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KO와 판정 승부가 반반씩 나왔다. 작년 1년간 13경기 가운데 KO가 8차례, 판정이 5차례 나온 점을 감안하면 효과는 미지수다.

심양섭 회장은 “격투기는 덜 두툼한 글러브를 쓰니까 KO가 많이 나오고 인기도 높지 않느냐”며 “복싱도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6온스 글러브를 사용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세계복싱협회(WBA)에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택 결승행 좌절

ATP 컨트리와이드 클래식

이형택(세계랭킹 42위·삼성증권)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에서 4년 만에 결승 진출에 도전했지만 아깝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형택은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UCLA 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진 ATP 투어 컨트리와이드 클래식 4강전에서 홈코트의 제임스 블레이크(9위)에게 1-2(3-6 6-4 3-6)로 아쉽게 패했다.

4년 전 새너제이 투어 대회 16강전에서 블레이크에게 0-2로 무릎을 꿇었던 이형택은 이날 그와 한 세트씩을 주고 받는 등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결정적인 순간 터져 나온 블레이크의 서브 에이스를 넘지 못했다.

전날 마라트 사핀(22위·러시아)과 8강전에서 서브 에이스 0-16의 절대 열세를 극복하고 준결승에 오른 이형택은 이날 블레이크와 서브 에이스에서는 4-10으로 비교적 선방했지만 스트로크 싸움에서 밀리며 결승 문턱에서 탈락했다. /박진표기자 lucky@